

광주시 사회적경제 모델 기반 다진다

광주시는 2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경제 모델 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125개, 마을기업 52개, 협동조합 626개 등 총 803개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인구 10만명 당 기준으로는 53.8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이어 강원 53.6개, 전북 51개, 제주 43개, 전남 38개, 대전 37개, 충북 34개, 서울 32개 등의 순이다.

사회적경제 조직 총 803개 설립·운영 인구 10만명당 53.8개...전국 최다 수치

광주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공모를 통해 사회적기업 등을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 인건비, 제품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투입되는 지원예산만 총 109억9천만 원이다. 광주시는 또 사회적경제 선도기

업을 5개 이내로 선정해 2000만원 규모의 자금지원과 금융·행정 지원,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료 할인, 디자인 상품화 지원, 재직자 자녀 장학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종합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성격의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전국에서 두번째로 설립했다.

한편 광주시는 세계협동조합의 날과 사회적기업의 날을 기념해 3일부터 7일까지 광주시청 시민홀 등에서 '광주 사회적경제 주간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념식, 상품 품평회, 사회적경제포럼, 사회적경제 기업 어워드, 찾아가는 음악회, 배리어프리 영화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신봉우 기자

“동구 두드림 앱 소문내고 경품 받으세요”

광주 동구는 오는 20일까지 '동구 두드림' 앱을 추천한 이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입소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첫 선을 보인 모바일 앱 '동구 두드림(Do Dream)'은 복지혜택, 문화정보 등 생활 속 '깨알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광장' 코너 등 생활 속 필수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모바일을 통해 구정을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동구 두드림' 앱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두드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족, 친구 등 동구 주민에게 두드림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사람이 두드림 회원가입 시 추천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응모된다.

임우진 서구청장, 지역신문협회 행정대상

임우진 서구청장이 (사)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주최하는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대상(기초단체장)'을 수상했다.

전국 300여 지역신문사가 가입돼 있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14회째를 맞이하는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은 의정·행정대상, 지역신문대상 등 각종 수상 후보자를 전국적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추천을 받아 1차 심사를 마친 뒤,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에 선정된 임우진 서구청장은 30일 서울 프레스 센터(서울시청 청사 옆)에서 열리는 '제14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선정패를 전달받았다.

남구 “관내 청소년, 언변의 미술사로 기웁니다”

지난달 30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에 걸쳐 나산회 스피치 학원에서 '2017 여름방학 청소년 스피치 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생의 경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중학생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2시간씩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 20명과 초등학교 4~6학년 20명, 중학생 20명이다. '2017 여름방학 청소년 스피치 교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북구,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갤러리 준공

광주 북구의 '풍물갤러리'가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북구는 문흥동 일원 낙후된 골동품 상가 일대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풍물갤러리'를 오는 4일 준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골동품 상가 주변에 골동품 경매를 위한 풍물마을 조성 및 주차공간 설치 등을 통해 풍물시장을 활성화 지역주민의 소통공간 확보 및 지역 일자리를 마련으로 지역가치를 새롭게 재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갤러리'는 문흥동 19-19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128.18㎡ 규모로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 각종 행사·경매 및 전시를 위한 풍물 경매장과 전시관을 설치하고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했다.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시 기프트콘 증정

광주 광산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한 주민 중 총 20명을 추천해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광산구는 이 기간 동안 매주 한 차례 10명씩 총 20명을 추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광산구에 현재 살고 있거나 광산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체 직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안은 1년 안에 완료할 수 있는 1억원 이하의 사업을 대상으로 일반주제와 지정주제로 구분해 받는다. 일반주제는 보건복지, 주민자치, 교육, 도서관, 문화관광, 경제환경, 안전도시 등 구정 전반을 다룬다. 지정주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리고 청소년·청년과 밀접한 정책에 한한다.

지방비 116억원 추가 총 224억원 지원

전남도는 공공체육시설 내 유해성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 국비 10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총 국비 지원액은 679억 원으로 전남도가 확보한 사업비는 우레탄 트랙에 90억 원, 인조잔디 18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비 116억 원이 추가돼 총 224억 원이 지원된다. 전남도가 이번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지난해부터 시군과 연석회의를 개최해 올해 예산 편성

방향을 안내하는 등 정부 방침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해당 시군과 사업비 산출 방식 등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유해성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은 36개소 중 21개소를, 인조잔디는 6개소 전체를 교체하게 된다. 나머지 시설은 2018년에 신청해 교체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우레탄 유해성 검사는 22개 시군별로 인증기관에 의뢰해 검사했다.

인조잔디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서 전문가에 일괄 의뢰해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우레탄이 800개소(전체 1천300개 중 61.5%), 인조잔디 136개(전체 933개 중 14.8%)에서 유해성 성분이 검출됐다.

전남에서는 우레탄 36개소(전체 60개 중 60%), 인조잔디 6개(전체 67개 중 8.9%)에서 검출됐다.

박종열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국비 확보액이 많이 유해성이 검출된 운동장 시설 대부분을 교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하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경영난 창업 11개 기업 지원 나서

전남도가 경영 어려움에 처한 3~7년차 창업기업의 생존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21개 신청 기업에 대해 1차 서류·현장평가와 2차 외부 심사위원의 사업 적합성, CEO 마인드, 제품 경쟁력 등에 대한 발표평가를 거쳐 농업회사법인(주)참바이오팜 등 11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마케팅, 제품 개발, 특허·인증, 홍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최대 90만 원까지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전남도, 유해성 우레탄 트랙 교체 총력...국비 108억 확보

전남도는 공공체육시설 내 유해성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 국비 10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총 국비 지원액은 679억 원으로 전남도가 확보한 사업비는 우레탄 트랙에 90억 원, 인조잔디 18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비 116억 원이 추가돼 총 224억 원이 지원된다. 전남도가 이번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지난해부터 시군과 연석회의를 개최해 올해 예산 편성

방향을 안내하는 등 정부 방침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해당 시군과 사업비 산출 방식 등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유해성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은 36개소 중 21개소를, 인조잔디는 6개소 전체를 교체하게 된다. 나머지 시설은 2018년에 신청해 교체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우레탄 유해성 검사는 22개 시군별로 인증기관에 의뢰해 검사했다.

광주 동구는 오는 20일까지 '동구 두드림' 앱을 추천한 이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입소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첫 선을 보인 모바일 앱 '동구 두드림(Do Dream)'은 복지혜택, 문화정보 등 생활 속 '깨알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광장' 코너 등 생활 속 필수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모바일을 통해 구정을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동구 두드림' 앱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두드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족, 친구 등 동구 주민에게 두드림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사람이 두드림 회원가입 시 추천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응모된다.

임우진 서구청장, 지역신문협회 행정대상

임우진 서구청장이 (사)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주최하는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대상(기초단체장)'을 수상했다.

전국 300여 지역신문사가 가입돼 있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14회째를 맞이하는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은 의정·행정대상, 지역신문대상 등 각종 수상 후보자를 전국적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추천을 받아 1차 심사를 마친 뒤,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에 선정된 임우진 서구청장은 30일 서울 프레스 센터(서울시청 청사 옆)에서 열리는 '제14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선정패를 전달받았다.

남구 “관내 청소년, 언변의 미술사로 기웁니다”

지난달 30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에 걸쳐 나산회 스피치 학원에서 '2017 여름방학 청소년 스피치 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생의 경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중학생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2시간씩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 20명과 초등학교 4~6학년 20명, 중학생 20명이다. '2017 여름방학 청소년 스피치 교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북구,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갤러리 준공

광주 북구의 '풍물갤러리'가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북구는 문흥동 일원 낙후된 골동품 상가 일대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풍물갤러리'를 오는 4일 준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골동품 상가 주변에 골동품 경매를 위한 풍물마을 조성 및 주차공간 설치 등을 통해 풍물시장을 활성화 지역주민의 소통공간 확보 및 지역 일자리를 마련으로 지역가치를 새롭게 재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갤러리'는 문흥동 19-19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128.18㎡ 규모로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 각종 행사·경매 및 전시를 위한 풍물 경매장과 전시관을 설치하고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했다.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시 기프트콘 증정

광주 광산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한 주민 중 총 20명을 추천해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광산구는 이 기간 동안 매주 한 차례 10명씩 총 20명을 추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광산구에 현재 살고 있거나 광산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체 직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안은 1년 안에 완료할 수 있는 1억원 이하의 사업을 대상으로 일반주제와 지정주제로 구분해 받는다. 일반주제는 보건복지, 주민자치, 교육, 도서관, 문화관광, 경제환경, 안전도시 등 구정 전반을 다룬다. 지정주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리고 청소년·청년과 밀접한 정책에 한한다.

지방비 116억원 추가 총 224억원 지원

전남도는 공공체육시설 내 유해성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 국비 10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총 국비 지원액은 679억 원으로 전남도가 확보한 사업비는 우레탄 트랙에 90억 원, 인조잔디 18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비 116억 원이 추가돼 총 224억 원이 지원된다. 전남도가 이번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지난해부터 시군과 연석회의를 개최해 올해 예산 편성

방향을 안내하는 등 정부 방침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해당 시군과 사업비 산출 방식 등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유해성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은 36개소 중 21개소를, 인조잔디는 6개소 전체를 교체하게 된다. 나머지 시설은 2018년에 신청해 교체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우레탄 유해성 검사는 22개 시군별로 인증기관에 의뢰해 검사했다.

인조잔디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서 전문가에 일괄 의뢰해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우레탄이 800개소(전체 1천300개 중 61.5%), 인조잔디 136개(전체 933개 중 14.8%)에서 유해성 성분이 검출됐다.

전남에서는 우레탄 36개소(전체 60개 중 60%), 인조잔디 6개(전체 67개 중 8.9%)에서 검출됐다.

박종열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국비 확보액이 많이 유해성이 검출된 운동장 시설 대부분을 교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하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경영난 창업 11개 기업 지원 나서

전남도가 경영 어려움에 처한 3~7년차 창업기업의 생존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21개 신청 기업에 대해 1차 서류·현장평가와 2차 외부 심사위원의 사업 적합성, CEO 마인드, 제품 경쟁력 등에 대한 발표평가를 거쳐 농업회사법인(주)참바이오팜 등 11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마케팅, 제품 개발, 특허·인증, 홍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최대 90만 원까지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전남도, 유해성 우레탄 트랙 교체 총력...국비 108억 확보

전남도는 공공체육시설 내 유해성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 국비 10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총 국비 지원액은 679억 원으로 전남도가 확보한 사업비는 우레탄 트랙에 90억 원, 인조잔디 18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비 116억 원이 추가돼 총 224억 원이 지원된다. 전남도가 이번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지난해부터 시군과 연석회의를 개최해 올해 예산 편성

방향을 안내하는 등 정부 방침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해당 시군과 사업비 산출 방식 등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유해성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은 36개소 중 21개소를, 인조잔디는 6개소 전체를 교체하게 된다. 나머지 시설은 2018년에 신청해 교체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우레탄 유해성 검사는 22개 시군별로 인증기관에 의뢰해 검사했다.

광주 동구는 오는 20일까지 '동구 두드림' 앱을 추천한 이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입소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첫 선을 보인 모바일 앱 '동구 두드림(Do Dream)'은 복지혜택, 문화정보 등 생활 속 '깨알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광장' 코너 등 생활 속 필수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모바일을 통해 구정을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동구 두드림' 앱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두드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족, 친구 등 동구 주민에게 두드림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사람이 두드림 회원가입 시 추천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응모된다.

임우진 서구청장, 지역신문협회 행정대상

임우진 서구청장이 (사)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주최하는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대상(기초단체장)'을 수상했다.

전국 300여 지역신문사가 가입돼 있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14회째를 맞이하는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은 의정·행정대상, 지역신문대상 등 각종 수상 후보자를 전국적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추천을 받아 1차 심사를 마친 뒤,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에 선정된 임우진 서구청장은 30일 서울 프레스 센터(서울시청 청사 옆)에서 열리는 '제14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선정패를 전달받았다.

남구 “관내 청소년, 언변의 미술사로 기웁니다”

지난달 30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에 걸쳐 나산회 스피치 학원에서 '2017 여름방학 청소년 스피치 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생의 경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중학생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2시간씩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 20명과 초등학교 4~6학년 20명, 중학생 20명이다. '2017 여름방학 청소년 스피치 교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북구,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갤러리 준공

광주 북구의 '풍물갤러리'가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북구는 문흥동 일원 낙후된 골동품 상가 일대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풍물갤러리'를 오는 4일 준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골동품 상가 주변에 골동품 경매를 위한 풍물마을 조성 및 주차공간 설치 등을 통해 풍물시장을 활성화 지역주민의 소통공간 확보 및 지역 일자리를 마련으로 지역가치를 새롭게 재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갤러리'는 문흥동 19-19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128.18㎡ 규모로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 각종 행사·경매 및 전시를 위한 풍물 경매장과 전시관을 설치하고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했다.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시 기프트콘 증정

광주 광산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한 주민 중 총 20명을 추천해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광산구는 이 기간 동안 매주 한 차례 10명씩 총 20명을 추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광산구에 현재 살고 있거나 광산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체 직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안은 1년 안에 완료할 수 있는 1억원 이하의 사업을 대상으로 일반주제와 지정주제로 구분해 받는다. 일반주제는 보건복지, 주민자치, 교육, 도서관, 문화관광, 경제환경, 안전도시 등 구정 전반을 다룬다. 지정주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리고 청소년·청년과 밀접한 정책에 한한다.

지방비 116억원 추가 총 224억원 지원

전남도는 공공체육시설 내 유해성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 국비 10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총 국비 지원액은 679억 원으로 전남도가 확보한 사업비는 우레탄 트랙에 90억 원, 인조잔디 18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비 116억 원이 추가돼 총 224억 원이 지원된다. 전남도가 이번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지난해부터 시군과 연석회의를 개최해 올해 예산 편성

방향을 안내하는 등 정부 방침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해당 시군과 사업비 산출 방식 등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유해성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은 36개소 중 21개소를, 인조잔디는 6개소 전체를 교체하게 된다. 나머지 시설은 2018년에 신청해 교체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우레탄 유해성 검사는 22개 시군별로 인증기관에 의뢰해 검사했다.

인조잔디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서 전문가에 일괄 의뢰해 조사를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우레탄이 800개소(전체 1천300개 중 61.5%), 인조잔디 136개(전체 933개 중 14.8%)에서 유해성 성분이 검출됐다.

전남에서는 우레탄 36개소(전체 60개 중 60%), 인조잔디 6개(전체 67개 중 8.9%)에서 검출됐다.

박종열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국비 확보액이 많이 유해성이 검출된 운동장 시설 대부분을 교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하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 경영난 창업 11개 기업 지원 나서

전남도가 경영 어려움에 처한 3~7년차 창업기업의 생존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창업기업 데스밸리 극복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21개 신청 기업에 대해 1차 서류·현장평가와 2차 외부 심사위원의 사업 적합성, CEO 마인드, 제품 경쟁력 등에 대한 발표평가를 거쳐 농업회사법인(주)참바이오팜 등 11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마케팅, 제품 개발, 특허·인증, 홍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최대 90만 원까지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전남도, 유해성 우레탄 트랙 교체 총력...국비 108억 확보

전남도는 공공체육시설 내 유해성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 국비 108억 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 총 국비 지원액은 679억 원으로 전남도가 확보한 사업비는 우레탄 트랙에 90억 원, 인조잔디 18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비 116억 원이 추가돼 총 224억 원이 지원된다. 전남도가 이번에 사업비를 많이 확보한 것은 지난해부터 시군과 연석회의를 개최해 올해 예산 편성

방향을 안내하는 등 정부 방침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해당 시군과 사업비 산출 방식 등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유해성이 검출된 우레탄 트랙은 36개소 중 21개소를, 인조잔디는 6개소 전체를 교체하게 된다. 나머지 시설은 2018년에 신청해 교체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시한 우레탄 유해성 검사는 22개 시군별로 인증기관에 의뢰해 검사했다.

광주 동구는 오는 20일까지 '동구 두드림' 앱을 추천한 이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입소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첫 선을 보인 모바일 앱 '동구 두드림(Do Dream)'은 복지혜택, 문화정보 등 생활 속 '깨알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광장' 코너 등 생활 속 필수 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모바일을 통해 구정을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동구 두드림' 앱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두드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족, 친구 등 동구 주민에게 두드림을 추천하고 추천받은 사람이 두드림 회원가입 시 추천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응모된다.

임우진 서구청장, 지역신문협회 행정대상

임우진 서구청장이 (사)전국지역신문협회에서 주최하는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대상(기초단체장)'을 수상했다.

전국 300여 지역신문사가 가입돼 있는 (사)전국지역신문협회가 14회째를 맞이하는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선정하는 이번 시상식은 의정·행정대상, 지역신문대상 등 각종 수상 후보자를 전국적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추천을 받아 1차 심사를 마친 뒤,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행정대상 기초단체장' 부문에 선정된 임우진 서구청장은 30일 서울 프레스 센터(서울시청 청사 옆)에서 열리는 '제14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선정패를 전달받았다.

남구 “관내 청소년, 언변의 미술사로 기웁니다”

지난달 30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에 걸쳐 나산회 스피치 학원에서 '2017 여름방학 청소년 스피치 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생의 경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중학생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각 2시간씩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교 1~3학년 20명과 초등학교 4~6학년 20명, 중학생 20명이다. '2017 여름방학 청소년 스피치 교실' 참가자 접수는 오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북구,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갤러리 준공

광주 북구의 '풍물갤러리'가 6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그 모습을 드러낸다.

북구는 문흥동 일원 낙후된 골동품 상가 일대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풍물갤러리'를 오는 4일 준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골동품 상가 주변에 골동품 경매를 위한 풍물마을 조성 및 주차공간 설치 등을 통해 풍물시장을 활성화 지역주민의 소통공간 확보 및 지역 일자리를 마련으로 지역가치를 새롭게 재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멋스러운 도동고개 풍물갤러리'는 문흥동 19-19번지 일원에 지상 1층, 연면적 128.18㎡ 규모로 총 사업비 8억원을 투입, 각종 행사·경매 및 전시를 위한 풍물 경매장과 전시관을 설치하고 방문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주차장을 조성했다.

광산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시 기프트콘 증정

광주 광산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한 주민 중 총 20명을 추천해 커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기간은 6